



7월 (주관 : 신상균 장로)

구분	안 내	봉 헌
1부	김경선 배영희	김영민
2부	박신형 최애경 하옥례 강순교	장석배 이윤석 고경호 김종성 박요환
차량안내	장석배 권중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튼교회 동소학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운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 - 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즈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등교회

예배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벨	엘
	2부	주일오전 11:30	벨	엘
찬양예배	주일오후 3:00		벨	엘
	11-2월	수요오후 7:00	벨	엘
수요기도회	3-10월	수요오후 7:30	벨	엘
	11-2월	월-토오전 5:30	엘	림
새벽기도회	3-10월	월-토오전 5:00	엘	림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엘	림
유치부	주일오전 11:30		베	들레함
유년부	주일오전 9:30		베	들레함
소년부	주일오전 9:30		사	무엘
중등부	주일오전 10:30		다	윗
고등부	주일오전 10:30		요	셀
청년부	주일오후 1:30		엘	림



경북 안동시 관철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박종석	담당 목사	박장덕
부목사	이종백 배장열 홍순진	교육 전도사	권엘림
교육목사	김영숙	권인철 신노균 김덕영 김경한	
원로장로	권영만 안연호 박종만 정복수 이교섭 김운한 김기일 조창래	김성대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은퇴장로	김복락 박용래 강신원 장부익 김성대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정재홍(전입)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덕 권영준 김성수 실동환 서정용 정석진 이규훈 이흥기 전석우 김경원 박영복 신상균 임규선 김희동		
지휘	박수경	피아노	장은혜 이지혜
오르간	신강희 강근숙 임해광	신디	남시영 강계연 배의진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 맥추감사주일 :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오후 찬양예배 :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교사 특별기도회 : 7. 3(월)~8(토)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 목요 경배와 찬양 : 이번 주는 교사기도회로 합니다.

* 금요기도회 : 7. 8월은 쉽니다(기관별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장모임 : 7. 8월은 쉽니다

모임 * 정기 제직회 : 2부 예배 후, 본당

알림 * 7월 중보기도 통신 : 내용에 따라 매일 기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 7. 14(금)~15(토) 교회,

유년부, 소년부 : 7. 21(금)~22(토) 교회

중등부, 고등부 : 7. 27(금)~29(토) 영덕 병곡교회

청년부 : 8. 3(목)~5(토) 교회

* 교회 청소 : 오늘은 12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 등).

* 성경통독(58) : 박유분(7) 설순옥(2) 오순희(6)

* 제49회 전국장로수련회 : 7. 5일(수)~7일(금), 더케이호텔경주, 케인타워로트, 소노벨경주(대명리조트)

교인동정 * 별세 : 김동제 성도(6. 29) - 금필교 은퇴집사 부군(김미수 편사 부친)

* 담임목사 : 다음세대 사역 세미나 참석(3일(월)~5일(수))

새가족

번호	이름	주소	샘	기관	인도자
44	김진목	안동시 송현길 16	13	청년부	김세영

■ 건축헌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설입조, 감사헌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십일조 : 강근숙 강순호 강양숙 권엘림 권영만 권오연 권정숙 권중규 권준희 권현주 김경선 김말숙 김분학 김숙희 김경애 김숙란 김용호 김운한 김유승 김유진 김인구 김정숙 김정숙 김준우 김희준 김희동 나희영 남재남 노의영 류기용 류명희 마호인 박명숙 박상훈 박순옥 박유분 박정서 박종만 박중순 박지우 배장열 배중희 배후남 서상교 석화란 설동환 설순옥 손영애 신상균 신화자 안상홍 안연호 오명진 오성열 오순희 오태희 이 정 이교섭 이기자 이대숙 이복순 이상선 이상열 이순연 이윤환 이영환 이태선 이항욱 임규선 임장제 임은진 임래숙 임해광 장보란 장정순 전대은 정경숙 정동수 정복수 정석진 정수미 정승호 정재홍 조미영 조영순 최애경 최태규 최현나 최현진 최유례 최영진 홍순진 황천석 황현주 무병명

감사 : 강도순 강순교 강순호 강신원 강양숙 권기진 권기환 권명자 권정숙 김경선 김경희 김미경 김명희 김숙희 김숙분 김운한 김재민 김재규 김종만 김진호 김진희 김희준 나희영 남상락 류명희 류현군 민기서 민요환 민정희 박경조 박민경 박유분 배장열 서상교 서종교 석화란 설순옥 양승기 이광원 이기자 이대순 이명희 이상선 이영환 이종희 이현실 정문호 정석진 정재홍 조영환 최경분 최규원 최순남 최은영 최태규 홍순진 황천석 어윤림손희사경 무병명

생일모사 : 강양숙 김유승 석화란 주정봉헌 : 228명 물질봉헌 : 690주씩 맥추감사 : 1명

건축 : 강도순 고은숙 권정숙 김 정 김분력 김수현 권이현 김영희 김애은 김민규 김중대 김중민 김형규 김희자 류명희 박명숙 박분순 박상훈 배영희 배문민 배장열 배후남 석화란 신상균 이기은 이기자 이상선 이장현 이 정 이정자 정동수 정석진 정재홍 최인자



2023 포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철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맥추 감사 주일)

1부 09:30
2부 11: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배장열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34:8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3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105(감사절 1)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305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 정재섭 집사
2부 : 박영복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디모데전서1:12~17 (신약p. 337) | 인도자
- 찬양 | 1부 : 행복 | 중등부
2부 : 하나로 찬양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한 가지 더 구하옵나니...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송 | 여호와를 사랑하라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 다음주 기도 : I 부 : 김영훈 집사    II 부 : 신상균 장로  
~~~~~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15:00

인도 : 교육부장 임규선 장로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유치부장 권재숙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2:1~2 | 유년부장 박종순 권사
- 특송 | 교회학교 교사 일동
- 설교 | 성경 교사 | 홍순진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홍순진 목사

◎ 다음주 기도 : 김선녀 권사

수요기도회

19:30

인도 : 이종백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박순옥 집사
- 찬양 | 제3부 남선교회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누가복음5:1~11 | 인도자
- 설교 | 풍요의 비결 | 이종백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이말숙 집사 찬양 : 제4부 남선교회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379장	289장	455장	323장	351장	182장
말씀	딤후2:1-15	딤후3:1-7	딤후3:8-15	렘1:1-10	렘1:11-19	렘2:1-19



본문 : 마가복음14:10~26

제목 : 나의 객실

만약 집안에 한 칸이 여유가 있어요 빈방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빈방에서 살고 싶다. 같이 살아가자. 이럴 때 빈방을 기꺼이 내드리고 싶을까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아가자. 편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귀찮고, 거북할까요? 어렵고 무서울까요? 어찌겠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보내야 하나요? 매번 찾아가서 절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나요? 편히 주무셨는가? 식사하셨는가? 물어봐야 하나요? 지금 뭐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밥하기 귀찮은데, 만사를 내려달라, 고기를 만들어 달라 해야 하나요? 귀한 말씀 가르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저 방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아주 난처하고 굉장히 난감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무교절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이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안, 시내로 들어가라. 가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객실이 어디 있는냐고 물어보신다고 말하거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청소를 다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시내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말씀대로 식사 준비를 다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준비된 방으로 가십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 유월절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음식과 객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성안, 시내로 보내시니까, 말씀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만납니다. 머물 객실까지 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를 위한 객실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적절한 객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내게 꼭 맞춘 것 같은 사람, 상황,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 공간, 삶의 공간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할 때 드릴 준비가 되어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객실이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객실이 있느냐?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객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객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힘으로 살다보니, 내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지금 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내드릴 객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의 객실, 믿음의 객실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빈방, 객실을 내어드리면, 그 객실 안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채워집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채워 집니다. 빈방에 주님과 함께 산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불편하지, 내가 불편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추해도, 더러워도 못살아도, 형편없어도, 주님 거하실 방을 내어드리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형편이 풀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주님의 객실이 있는가? 있다면 침략 전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 속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객실을 마련하면 그 객실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하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바닥으로 내리쳐도 다 빼앗기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도실 객실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천국입니다. 성령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위해 마련한 객실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